

2020학년도 수능, 마무리 학습전략 중요

전북도교육청, 지방 대학 모집 단위로 비중 높은 영역 중심으로 준비해야

2020학년도 수능시험(11월 14일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시기에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무리 학습전략 및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지원을 준비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경쟁력이 있는 전형요소와 대학별 모집단위를 찾고, 전년도 입시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학의 전형방법과 학과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영역별 마무리 학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이 영역 대상학력개발연구소장이 수능 D-100을 앞두고 전하는 학습전략이다.

◇수능 마무리 학습 대책

앞으로는 맞춤형 수능 공부가 중요하다. 수능 공부의 지방 대학의 모집 단위에서 비중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 대학을 몇 개 선정해 해당 대학에서 비중이 높은 영역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수능 성적은 계열별로 다르게 반영하는데 영어가 절대평가 되면서 인문계 자연계 모두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높아졌다. 지방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중치 등을 고려해 비중이 높은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출제경향과 예상난이도를 다시 한번 점검한다. 수능 공부에서는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정확하게 예상해 준비하는 것

이 중요하다. 6월 모평은 국어와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다수 쉬웠지만 수학과 탐구는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되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수학과 탐구 영역은 6월 모평 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면 될 것이다. 지난해 수능 문제를 포함한 기출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아야 한다.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참고한다. 올해 수능 시험도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하는데 연계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수준이다. 따라서 수능 준비에서는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6월 모평에서도 70%를 연계하여 출제하였으나 변별력을 가르는 주요 문항은 비연계 지문을 활용한 문제

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오답노트를 잘 활용한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 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기해야 하는 시기이다.

다만 문제 풀이도 그냥 정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교과서를 통해 기본 개념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 풀이를 통해 영역별로 주어진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많이 하고 수능시험에 대한 실전 능력을 길러야 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마무리 학습도 중요하다. 남은 기간 동안 체력을 관리하고, 수능 시간표에 생활 리듬을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수능에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동원 총장은 멕시코에 이어 미국 켄터키대학교를 찾아 연구 등 다양한 교류를 약속했다.

전북대, 美켄터키대학교와 연구 협약

농생명 등 공동연구, 직원 교류까지 연수 확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미국 주요 대학과의 교류에 물꼬를 댔다.

지난 7월24일부터 8월3일까지 멕시코와 미국 주요 대학 및 기관을 방문한 김동원 총장은 멕시코에 이어 미국 켄터키대학교를 찾아 연구 등 다양한 교류를 약속했다. 켄터키대학교가 한국 대학과 교류하는 건 전북대가 처음이다.

켄터키대학교는 전북대와 비슷한 학생 수가 3만 명 정도인 대외적으로, 300만명 규모의 넓은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총 예산이 4조 규모로 앞서가는 미국 내 주립대학 중 하나다.

이날 김 총장은 켄터키대학 토마스 해리스(Thomas W. Harris) 부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전북대의 강점 분야인 공학 및 생명공학, 농생명 등에서 공동연구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수를 비롯해 학생 등 인적 교류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인적교류에 직원 교류까지 포함해 전북대의 최고 유능한 직원들이 이 대학에서 연수와 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 총장은 멕시코를 찾아 KOTRA K-MOVE센터를 비롯해 과나후아토대학, 멕시코 국립자치대학, 유카탄자치대학, 멕시코 현지 한국 기업 등 학생 해외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최첨단 비파괴검사기술 기술이전

테라헤르츠파 이용 파이프 접합부 검사 기술 플라스틱 배관 접합 검사·안전 진단 활용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소장 강래형·유연인해전자공학과 교수)가 개발한 테라헤르츠파 기반 비파괴 검사 노하우가 국내 광학 업체에 기술이전 돼 상용화된다고 5일 밝혔다.

강래형 소장은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테라헤르츠파 기반 파이프 접합부 결합 검사 기술을 최근 대전 소재 광학 기업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

다"고 전했다.

이 기술은 테라헤르츠파를 특정 부위에 쏘아 기기를 분해하지 않고도 기기의 결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다.

산업 전반에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 배관의 접합 검사와 안전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학

교 한국공학연구소는 기계, 전자, 탄소소재 및 스마트 재료 등 다양한 분야가 접목된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최첨단 비파괴검사기술에서부터 스마트 센서 개발, 복합재료 등의 소재 기술, 신호처리 및 제어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 구조 건전성 관리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 소재의 다양한 기업체·공장, 항공, 드론, 탄소섬유, 전자부품 업체 등 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방면의 산학 연구를 수행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22명 발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5일 201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22명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1,533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했으며, 그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249명이 면접시험을 거친 결과 222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합격자는 교육행정 157명(일반 149명, 장애 4명, 저소득층 4명), 사서 9명, 공업(일반기계-일반 8명, 일반전기-일반 6명) 14명, 시설(일반토목-일반 2명, 건축-일반 2명) 4명, 공업(일반기계-고졸 2명, 일반전기-고졸 2명) 4명, 시설(건축-고졸) 1명, 운전 33명이다.

합격자의 남녀 비율은 각각 남성 42.8%, 여성 57.2%이었으며, 30세 이하가 73%로 나타났다.

최종 합격자는 8월 6~8일 도교육청에서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8월 19~30일 전북교육연수원에서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신규임용 후보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잘 적응하고 행정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0월부터 1개월(공업·시설 직렬은 3개월) 간 교육청 및 학교에서 실무수습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어린이 교육연극 캠프 운영

초등학생 40명 대상 자신감, 표현력 강화

전북도교육청은 5~6일, 7~8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전주시 거주 초등학생 4~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연극에 빠지다! 어린이 교육연극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전북교육연극연구회와 전주교대 대학원 교육연극 전공 교사들의 지도로 진행되며, 연극 체험을 통해 자신감과 사고력, 창의적 표현력을 키우고 대인관계 및 사회성을

함양해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몸으로 표현하는 자기 소개 ▲몸풀기 연극놀이 ▲움직임과 정지 이미지 ▲상상과 즉흥 스토리텔링 ▲즉흥연극 만들기 ▲드라마 속 편견과 인습 행동으로 옮기기 ▲세상을 바꾸는 행동극 만들기 등이 다.

교육연극에서 쓰이는 연극기법은 상

황에 몰입하고 객관적으로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깊이 있게 배우게 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도와 대인관계 역량을 키우는 데도 효과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종합 예술교육인 연극을 체험하면서 상상력과 창의성 계발 및 탐구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연극을 통해서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과 감성 및 소통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연극 교육의 활성화로 재미있고 창의적인 교실 수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최종합격자 23명 발표

전북도교육청은 5일 2019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추가선발에 따른 최종합격자를 결정,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에 발표했다.

이번 최종 시험에서는 일반분야 22명 모집에 36명이 응시해 22명, 장애 분야는 2명 모집에 1명 응시에 1명이 합격해 총 23명이 합격했다.

최종합격자는 교직논술과 교육과정(기업형, 서술형)으로 실시되는 제1차 시험 점수와, 교직적성 심층

면접과 수업실연을 평가하는 제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해 결정했다.

개인별 성적은 9일까지 도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edurecruit.jbe.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합격자들은 8일~9일까지 2일간 임용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